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6년 제2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베드로의 회개” (눅 22:61, 62)

생명의 말씀 앞에!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은총의 시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1.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순종의 사람이었다(마 19:27). 베드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마 14:28). 특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대단하였다(마 16:15-17).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 주시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셨다(마 16:18, 19). 이처럼 베드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다.

2. 자신의 실을 살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지만 자기 자신만은 온전히 내어 놓지 못했다(마 16:22, 23).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의지에 속한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였다. 비록 그는 자신의 배와 그물은 나 내 버렸지만 자기 자신만은 내어 버리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눅 22:57-60).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무엇인가를 원하였고, 후손인 우리도 죄의 엄청난 속성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인가? 나 자신을 부인할 것인가? 인간의 본체인 이 자아 즉 자기 자신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나 행한 것으로”(찬 203장).

3.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길은 베드로의 가슴을 찔렀고, 그가 저지른 죄와 남매, 모든 죄악들을 발견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눅 22:61, 6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지켜봤던 베드로의 절망 그리고 자신의 무능, 배반에 대한 고뇌와 수치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온통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베드로는 변할 수 밖에 없었다(눅 22:31, 32).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를 아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찬 332장).

4. 변화된 베드로

“내가 죽을찌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때 이미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다(마 26:35).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변화였고, 그의 안에 숨쉬며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주장하였었다(벧전 4:14). 이제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벧전 2:21).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 놓는 데서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행 5:29).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다(행 5:41).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벧전 3:4, 5). “나의 믿을 약할 때”(찬 423장).

5. 왜 우리에게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베드로의 삶은 모든 믿는 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한 신자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서 육의 능력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강하게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벧전 2:11). 예수님께서 교만한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요일 2:15-17). 베드로를 통해서 죄인을 받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올니다”(찬 331장).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내 자신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참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며,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하신다(벧전 2:9, 10).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¹) In the third month after the sons of Israel had gone out of the land of Egypt, on that very day they came into the wilderness of Sinai. ... (⁷) So Moses came and called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set before them all these words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him. (⁸) And all the people answered together and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And Moses brought back the words of the people to the LORD. (Exodus 19:1~8)

When God called Moses at Mt. Sinai to bring His people out of Egypt, He said,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and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shall worship God at this mountain"(Ex. 3:12). The Israelites camped at Mt. Sinai three months after their exodus from Egypt, just as God had promised. Moses led them from captivity to freedom. He went up the mountain again, and God talked to him. He told him to tell the sons of Israel these words,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Now then,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then you shall be My own possession among all the peoples, for all the earth is Mine;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vv. 4-6). Moses came down the mountain and told God's people all these words, which God had commanded him. All the people answered together,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v. 8)! Moses then went back and told God these words of the people.

God's word requires complete obedience. If you listen, you will be His holy child. When the house of Jacob and the sons of Israel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it meant they agreed to listen. With one voice and as one body they agreed to do all that God asked. Their unity in the word of God was precious,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dwell together in unity"(Ps. 133:1)! If you bring the word of God into your house, letting Jesus be the Master, and everyone unites in obedience, then everything is beautiful. Jesus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Thou wilt"(Mt. 26:39). Jesus denied Himself because He was willing to go His Father's way, even unto death.

God's word requires faith. When the sons of Israel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it meant they had faith.

They believed in the word of God. Today's 21st century Christians tend to doubt and reject God's word. They believe half of what He says, but not all. They ignore what they do not like and confuse the meaning of the rest. They are sinners, dead people walking, but God still loves them. He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save them from eternal damnation,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Rm. 5:8). If you believe it, Jesus will save you. God's word says,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Rm. 10:9). It also says, "Whoever wi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Rm. 10:13). If you believe God's word, you will have salvation an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forever and ever.

God's word requires faith and obedience all the time and all the way. You have to practice your faith and obedience up to the end. When the sons of Israel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it meant not just this time but also always. James 2:14 asks, "What use is it, my brethren, if a man says he has faith, but he has no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You have to take God's word and keep it until you finish this life. When the word of God comes to you, you have to do it all the way. You cannot turn it on and off. You cannot pretend you do not hear it. You have to believe it and do it all the time. The prodigal son realized his mistake, and told his father,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Lk. 15:21). If you truly believe the word of God, then come back to Him, and keep His word and you will have eternal blessings.

Today is June 25th, the 5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God has blessed us and given us a tremendous opportunity. We have to believe and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In faith and with obedience, we need to believe in God's word and do it all the way, until He calls us home. Amen. 🙏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출애굽기 19:1~8)



김성관 목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4-6절).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8절)! 모세는 다시 돌아가 백성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제히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연합할 때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가고자 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쯤만 믿을 뿐 전적으로 신

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고 그 나머지 말씀의 의미들을 마구 뒤섞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금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14는 질문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듣고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해석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믿고 행해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눅 15:21).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56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전적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 (히 11:13~16)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천국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좇을 때가 많다. 타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믿음(히 11:1)로 말씀(히 11:3)에 순종하며 본향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진실로 믿자. "이 사람들은 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 그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히 11:13).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단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만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고전 15:19). 모세는 더 나은 본향을 진실로 믿었기에 세상에서 보장하는 미래를 거절했다(히 11:24).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잠시 죽었을 때 천원을 경험하였다(고후 12:4).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였다(행 7:55). 이처럼 바울과 스데반도 더 나은 본향을 진실로 믿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온갖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공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나. 이 불안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후 5:1).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하기에 매일 회개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다. 말씀이 전하는 본향은 어떠한 모습인가?

아름다운 본향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본향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은 완전한 새 하늘 새 땅이며 그곳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로악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과 영광만이 있다(제 211-4).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신부인 우리는 성

령의 인도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제 21:9,10).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곳이다(제 21:11). 바로 이 곳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참 신자가 들어갈 아름다운 본향이다.

놀라운 이익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은총의 자녀만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제 21:27). 이 본향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 우선 그곳에는 밤이 없다(제 21:25). 불의도 없다(제 21:11).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에 밝고도 밝은 곳이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라"(제 22:5). 또한 예덴 땅에서 금지(창 3:22)하였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길 가운데로 흐르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제 22:2). 본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오직 주님을 섬기게 된다(제 22:3). 특히 본향은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그 어떠한 저주도 없는 곳이다. 참으로 본향은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놀라운 유익이 있다.

축복의 본향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익이 있는 본향은 최고의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를 미혹하였던 마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제 20:10). 본향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뿐이다(제 19:7).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우리의 아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제 22:4). "내 주 예수 피를 떼어 그 은혜 찬송 하겠네"(찬 295장). 우리 모두 이 축복의 본향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가야 한다. "저희를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마 25:46).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축복의 본향이다. 이 본향을 매 순간마다 소망하며 살기 바란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부르세... 만국 왕 되신 주 우리 줄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찬 232장).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유치부



전학(제210호) 유치부장

어린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두 팔을 크게 벌려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너무나 귀한 어린 아이들을 매 주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저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의 하나입니다.

유치부는 매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교사들의 간담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유치부 예배(제1교육관 207호)가 시작되까지 선생님들은 말쑥한 양복리들을 기쁨으로 맞이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절로 감사가 납니다. 각자의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행 없이 항상 믿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합

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철 없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으며 유치부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얼굴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새 천구 초창 전도 집회는 유치부를 복음으로 묶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고 선생님들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유치부 아이들도 또래의 친구들을 전도하겠다고 작은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초창 전도 집회가 있던 날 비록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는 말씀을 붙들며 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9). 유치부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아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부 선생님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며 소망입니다. 특히 각 가정의 6~7세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 학문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복음 위에 굳게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데!

빈민촌 아이들의 모습,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모습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사는 곳이 영적으로 암울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살아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제는 이 땅을 기쁨해야 할 대인가 보다. 그래서 잘난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씨를 뿌리려 하신다 보다.

사역 중에 한 아이는 우리가 나누어 준 전도지를 찢었다. 그 때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다른 마을에 들어가 사역을 할 때였다. 우리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알라’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내가 예수를 외칠 때마다 ‘알라’를 외치며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였다. 이처럼 쉽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땅에 복음의 씨가 심기어져 썩어 나고 열매가 맺길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연희(집사, 3교구)

성령님의 동행과 역사하심

출발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 아마도 이 동행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우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한 때가 주말이기에 차를 렌트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타미날로 향했다. 마침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니버스를 탈 수 있었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도 가도 길이 없고 바로 옆은 남태평양의 연속인 산길을 가는 동안 버스 타이어나 연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 마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오로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도 상황은 매우 열악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다.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 우리에게 지붕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나뭇가지로 위협하는 아이들, 때론 욕까지 하는 아이들 때문에 두렵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듯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한 마을에선 전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셨고, 우리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였다.

박진수(집사, 8교구)

말씀에 순종하며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기에 오직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많이 달라서 고생은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속에 당황하지 않았고 더욱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백발의 노부부, 청춘 남녀들, 순수한 어린 아이들 모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곽계자(집사, 5교구)

칼보다 더 강한 복음의 능력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기차에 오르내리는 승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속소가 사원 앞이었는데, 새벽 5시,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의 사역을 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을 믿고 있는 현지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칼보다 더 막강한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물이 아른 대원도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 하나 우리가 한 것은 없었으며, 오직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이루셨습니다.

홍현기(권사, 18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9(월) ~ 6월 24(토)	소양부 1팀	남종철
6월 19(월) ~ 6월 27(화)	4교구 13지역	오순도
6월 19(월) ~ 6월 27(화)	8교구 5지역	한용배
6월 19(월) ~ 6월 27(화)	8교구 6지역	박춘근
6월 19(월) ~ 6월 27(화)	9교구 1지역	강희창
6월 19(월) ~ 6월 27(화)	9교구 6지역	오재일
6월 19(월) ~ 6월 27(화)	13교구 1지역	권영주
6월 19(월) ~ 6월 27(화)	16교구 3지역	윤상철
6월 19(월) ~ 6월 28(수)	장년1부 1팀	박영섭
6월 19(월) ~ 6월 29(목)	2교구 5지역	정은환
6월 20(화) ~ 6월 27(화)	6교구 1지역	박광식
6월 20(화) ~ 6월 28(수)	11교구 2지역	김철환
6월 21(수) ~ 6월 28(수)	10교구 8지역	노태경
6월 21(수) ~ 6월 30(금)	7교구 7지역	이인광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6월 5(월) ~ 6월 13(화)	2교구 6지역	이정태
6월 5(월) ~ 6월 13(화)	9교구 4지역	김명성
6월 5(월) ~ 6월 13(화)	8교구 4지역	김종홍
6월 5(월) ~ 6월 13(화)	9교구 3지역	김준규
6월 5(월) ~ 6월 15(목)	14교구 4지역	이근호
6월 7(수) ~ 6월 15(목)	소년부(1)	홍성욱
6월 8(목) ~ 6월 16(금)	18교구 1지역	강태영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 새 생명

얼마 전 사업상의 일로 인도네시아의 '족자'라는 곳에 갔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에 원래는 '족자'에서 하루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0시간 동안 야간 버스에 몸을 싣고 '반둥'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밤에 다시 '자카르타'로 이동하여 다음날 현지에서 있는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현지 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눈 뒤 저녁에 돌아오니 가정 부로부터 '족자에 강진이 있어 큰일 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하루만 늦게 나왔거나, 주일에 하나님을 찾았자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아니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은 마치지 못했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3년 전 몸이 불편해서 20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호된 신교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기도로 응답받아 해외를 오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작은 성경책과 아픈 십자가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같은 저의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사업이 잘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꾀와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의 생명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를 이끄시기에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 담이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서 칭찬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계시어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저희 곁으로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는 밖에서 뛰노는 것보다 더 좋아요. 새로운 찬송가를 배울 때는 일 주일 내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제가 잘못된 점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들어 주셔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 나중에 꼭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 주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최담이(유년부)

교사 양성부 과정을 수료하며

교회학교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항상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교회에 가는 것을 불편할 때가 많은데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 노년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면 회개할 것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고자 교사 양성부 과정에 지원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사 양성부 과정을 수료하며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사로 섬기며 저는 그분들께 사랑을 드리기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만 만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어 주셨는데 주님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사 자아를 잊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저에게 맡기어 주신 영혼들에게 인간의 뜻을 주장하는 교사가 되지 않도록 겸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영주(성도, 17교구)

세가족부를 수료하며

“이런 저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전도적으로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 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오늘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교회 문을 들어왔습니다. 만 그 꽃에는 담을 굳이 망설이지만 저는 모든 것을 제 계획대로 하려고 마음 속에 교만을 가득 채운 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굳은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갈 기도합니다. (정재현)



♥ 3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던 매형이 9개월 전에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심에 빠져 있을 때 누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 가족 모두 기뻐 주었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면서 약속이나 한듯 주일 아침이면 별다른 말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평안이 없던 제게 참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황은호)

♥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불교신자였던 엄마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 38년 만에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 죄 많은 저를 다시 불러 주신 그 은혜가 어찌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저의 열심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고백합니다. 이제 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정자)

♥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실로 깨닫게 해 주시고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신안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조재현)

♥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제게 주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했던 슬픔과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조병식)

(정리 : 편집실)

교회 열방 초등부(1과 4반)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들어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경 교사)

초등부는?

매주 일 10시 30분 교육관 407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오세요.

(창립식 목사, 지도)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봉선 만수집사, 고무창집)

성경 시간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정말 좋아요. (정선우)

친한 교회 오면 좋아요. 특별히 찬양을 드리면 기뻐요. (이지은)

분반 공부는 어떻게?

저의 반 친구들은 모두 3학년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얼굴만 보면 힘이 솟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서로 고백을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미경 교사)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김예중)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집에서 엄마하고도 이야기해요. (이지은)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김예진)

전도는?

학교별로 전도 특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별로 중대대에 소속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봉선 교사)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본 뒤에 예수님을 모르면 가르쳐 줘요. (김예중)

저는 학원 전도 특강대예요. 제가 다니는 학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윤세현)

전도를 하면 친구들이 "나나 다녀!"라고 해요. 그 때마다 속상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전도할 거예요. (정선우)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미경 교사)

예수님 사랑을 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나를 도와 주시는 분이세요. (윤세현)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 좋은 분이세요. (이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김예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정선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가자. (김예진)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가 되자. 나부터! (김예중)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마우신 분이세요! (이지은)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것보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정선우)

도래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다니며 놀고 싶었던 초등부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려내는 빛으로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사단을 대적할 가장 큰 무기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마 18:3).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변화되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천국 아가씨가 되길 소망한다.

(판금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



오 거룩한 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 찬양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 처음 찬양은 "오 거룩한 밤"이다. 이 곡의 원조는 네덜 라장조인데 반음을 내려 줄때 부르기 쉬운 대장조로 바꾸어 현재 금요집회 시 찬양 드리고 있다. 셋잇단음표로 시작되는 전주는 총 6마디 나오고 찬양이 시작되는 때는 4분음표이다. 찬양은 처음에 조금 세게 mf)로 시작한다.

"거룩한 밤 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찬양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며 죄인을 위해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부터 점점 세게 <) 찬양하다가 "경배하라" 부분부터 세게 f)하며 구주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힘 있게 찬양한다. 다음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말 구유 의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 "우리들도 신앙의 불꽃만 사방의 주 품안에 안기게" 역시 이방인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 주신 사랑에 찬양을 하던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십자가에 고정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초여름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 땀새나고 초라한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을 감사하며 성탄 찬양을 통해서 더욱 나를 부인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 찬양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금요집회 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서문성(순수집사, 전임지회자)

♡ 새 · 가 · 족 · 을 · 원 · 영 · 합 · 나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904	김한주	19	중등2부	박지훈(16)	1932	남민영	19	대학부	김정민(19)
1905	박송희	11	장년3부	최순희(11)	1933	최영록	9	장년3부	이은하(1)
1906	정나영	15	장년1부	최정현(7)	1934	한승관	19	대학부	심재현(17)
1907	박병학	1	장년2부		1935	박두환	19	대학부	김순현(8)
1908	정성삼	8	장년3부	배현진(17)	1936	정민호	19	대학부	최준승(3)
1909	정윤현	19	고등부	이인순(1)	1937	최인영	19	대학부	최지혜(2)
1910	조영욱	19	청년1부	모지선(4)	1938	문병철	19	청년1부	김명석(15)
1911	정종수	19	고등부	김지수(14)	1939	전영우	13	청년1부	정윤호(18)
1912	김영귀	19	중등3부	김희연(18)	1940	황은미	19	청년1부	김명석(2)
1913	문 용	9	장년1부	최민석(4)	1941	김기철	11	장년2부	한예현(12)
1914	박희영	9	장년1부	최민석(4)	1942	황기열	1	장년1부	김홍배(10)
1915	이진식	13	청년2부	전진국(11)	1943	조지현	19	청년1부	차지현(19)
1916	우성희	19	청년1부	이태환(4)	1944	우크대	19	외선부	김나홍(13)
1917	가 나	19	외선부	김지선(9)	1945	크대	19	외선부	이영미(15)
1918	김지나	19	외선부	전은음(13)	1946	오동범	19	외선부	전옥희(7)
1919	김한나	19	대학부	김종선(8)	1947	라트	19	외선부	김순화(6)
1920	원혜성	19	중등3부	김경숙(7)	1948	바인찬	19	외선부	박선아(7)
1921	조경미	19	중등2부	김하은(13)	1949	오정호	19	대학부	김현우(19)
1922	최광수	19	중등3부	원종진(15)	1950	나진나	19	외선부	
1923	김용택	10	장년3부	김현정(2)	1951	비야맨	19	외선부	
1924	박광현	19	중등3부	최정현(7)	1952	지대현	19	외선부	
1925	박종호	5	청년1부	양하은(5)	1953	오정기	12	장년1부	오정철(3)
1926	권연지	1	장년2부		1954	정영주	19	청년1부	
1927	정정화	19	청년1부	이승훈(6)	1955	최성자	6	장년1부	이진규(9)
1928	이수영	19	중등2부	김은혜(15)	1956	김민정	19	대학부	이민정(4)
1929	박용민	19	청년1부	이태환(4)	1957	오정록	19	청년1부	김연희(12)
1930	이대기	19	고등부	이승훈(7)	1958	이규민	5	고등부	
1931	이지연	19	고등부	이대원(1)					

※ 후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층으로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illegible]